

은행

산업이슈 브리프 |

Check Point

- 수신금리 하락으로 1월 신규 NIS 반등
- 가계대출 금리 하락압력 가중
- NIM 둔화흐름 불가피

1월 가중평균금리 동향: 신규 수신금리 큰 폭으로 하락

Analyst 전배승 _ 02 3779 8978 _ bsjun@ebestsec.co.kr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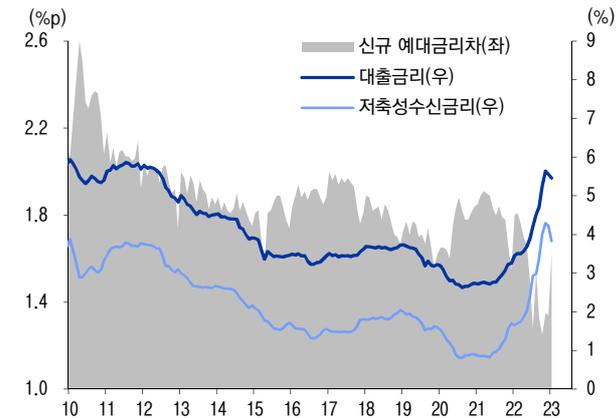
1월 큰 폭의 조달금리 하락으로 신규 예대금리차 반등. 가계대출금리 1년 6개월만에 반락

- ▶ 2023년 1월 중 예금은행 신규 예대금리차는 1.63%p(총대출-저축성수신)로 2022년 12월 대비 29bp 상승하며 지난해 5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. 연초 이후 시장금리가 하락세를 보인데다 연말 예대율, 유동성비율 등 규제비율 준수를 위한 은행권의 자금조달 수요가 완화되면서 신규 저축성수신 금리가 1월 중 39bp 큰 폭으로 하락한 영향. 대출금리의 하락폭은 10bp에 그쳐 신규 예대금리차가 크게 확대됨. 다만 여전히 절대수준 측면에서는 지난해 연초 대비 20bp 가량 낮은 수준
- ▶ 은행수지에 보다 유의미한 잔액기준 예대금리차(총대출-총수신)의 경우 2.58%로 전월대비 3bp 상승하며 지속적인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음. 다만 총수신이 아닌 저축성수신을 기준으로 한 잔액 예대금리차(신규 예대금리차 산식과 동일)는 수신금리 상승 영향으로 신규 예대금리차와 마찬가지로 전년동월 대비 20bp이상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음
- ▶ 1월 중 신규 가계대출 금리는 5.47%로 12월 대비 13bp 하락하며 2021년 5월 이후 처음으로 전월대비 하락함. 특히 가계 신용대출 금리의 경우 7.21%로 12월 7.97%에 비해 76bp나 하락. 주담대 금리의 경우 4.58%까지 낮아지며 지난해 11월 이후 3개월째 하락세를 보이고 있음. 주택경기 침체가 지속되면서 은행권의 주택대출 관련 교섭력이 지속 낮아지는 중
- ▶ 기업대출 금리의 경우 1월 신규취급액 기준 5.47%를 기록하며 가계대출과 동일한 수준을 기록. 지난해 10~11월 간 100bp 가량 큰 폭으로 상승한 이후 12~1월 중 20bp 반락. 대기업에 비해 중소기업 대출금리 하락 폭이 다소 크게 나타나고 있음

NIM 둔화압력 불가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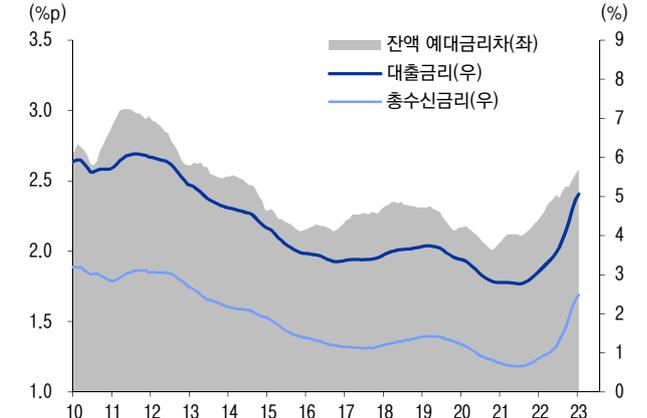
- ▶ 최근 시장금리가 재차 반등세를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절대수준은 지난해 4분기 대비 낮은 수준. 연초 이후 수신금리 하락에도 대출금리 상승 폭 둔화와 누적적 조달비용 상승으로 순이자마진 둔화가 불가피할 전망. 추가적인 금리인상 여력이 크지 않아 NIM 모멘텀은 지속 약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
- ▶ 또한 최근 정부와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금리 인하요구 또한 가산금리 확보에 부정적 여건으로 작용. 코픽스금리 하락으로 1월 중 가계대출 가산금리는 소폭 반등하긴 했으나 여전히 역사적 저점 수준

그림1 신규취급액기준 예대금리차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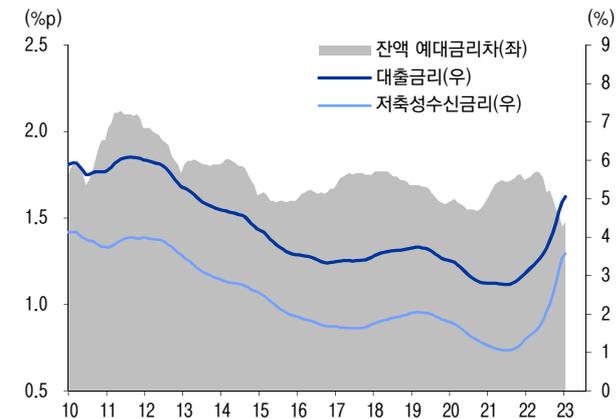
자료: 한국은행,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

그림2 잔액기준 예대금리차(총수신 기준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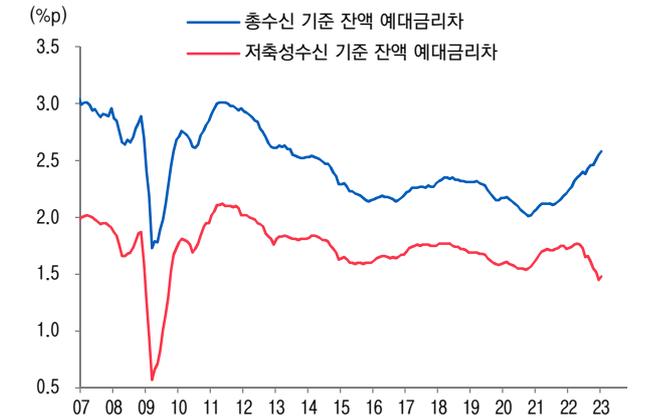
자료: 한국은행,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

그림3 잔액기준 예대금리차(저축성수신 기준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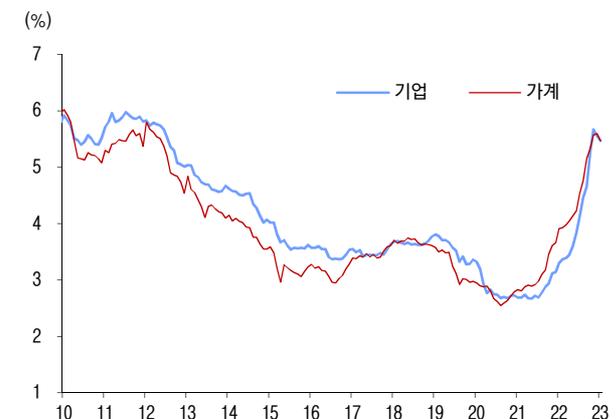
자료: 한국은행,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

그림4 잔액기준 예대금리차(총수신 vs 저축성수신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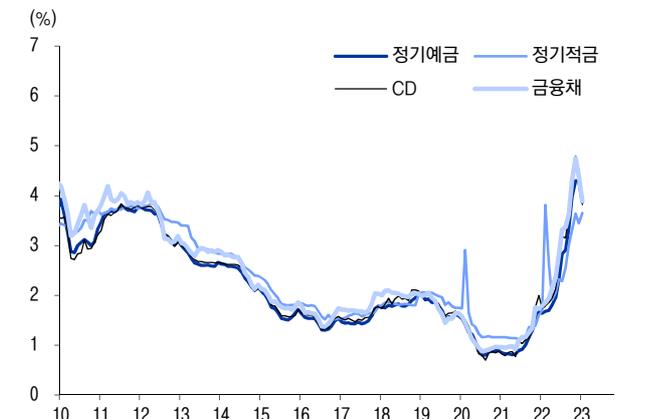
자료: 한국은행,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

그림5 가계대출 금리와 기업대출 금리(신규취급액 기준)



자료: 한국은행,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

그림6 조달금리 추이



자료: 한국은행,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

그림7 가계대출 부문별 금리(신규)



자료: 한국은행,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

그림8 기업대출 부문별 금리(신규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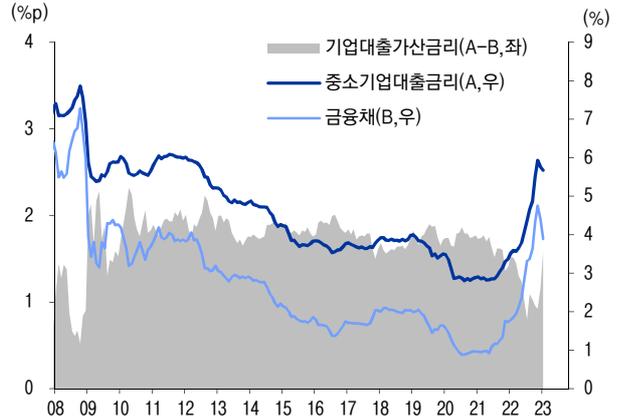
자료: 한국은행,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

그림9 가계대출 가산금리(신규)



자료: 한국은행,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

그림10 기업대출 가산금리(신규)



자료: 한국은행,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

그림11 기준금리와 시장금리 추이



자료: 한국은행,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

그림12 장단기금리차 추이



자료: 한국은행,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

Compliance Notice

본 자료에 기재된 내용들은 작성자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(작성자: 전배승)

본 자료는 고객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.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본부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한 것이나,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유가증권 투자 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. 따라서 본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.

본 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 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의 동의 없이 복제, 배포, 전송, 변형될 수 없습니다.

- _ 동 자료는 제공시점 현재 기관투자가 또는 제 3 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.
- _ 동 자료의 추천종목은 전일 기준 현재당사에서 1%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.
- _ 동 자료의 추천종목은 전일 기준 당사의 조사분석 담당자 및 그 배우자 등 관련자가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.
- _ 동 자료의 추천종목에 해당하는 회사는 당사와 계열회사 관계에 있지 않습니다.

투자등급 및 적용 기준

구분	투자등급 guide line (투자기간 6~12개월)	투자등급	적용기준 (향후 12개월)	투자의견 비율	비고
Sector (업종)	시가총액 대비 업종 비중 기준 투자등급 3 단계	Overweight (비중확대) Neutral (중립) Underweight (비중축소)			
Company (기업)	절대수익률 기준 투자등급 3 단계	Buy (매수) Hold (보유) Sell (매도)	+15% 이상 기대 -15% ~ +15% 기대 -15% 이하 기대	93.0% 7.0%	2018년 10월 25일부터 당사 투자등급 적용기준이 기존 ±20%에서 ±15%로 변경
		합계		100.0%	투자의견 비율은 2022. 1. 1 ~ 2022. 12. 31 당사 리서치센터의 의견공표 종목들의 맨마지막 공표의견을 기준으로 한 투자등급별 비중임 (최근 1년간 누적 기준. 분기별 갱신)